

'98돌 3·1절' 약화된 한·일 관계에도...

유니클로·포켓몬 ... 일본 브랜드 인기

■한국에서

올해는 대표적 항일 독립운동 '3·1운동'(1919년 3월 1일)이 일어난 지 98년,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1945년)된 지 72년이 되는 해이다.

'국교 정상화'(1965년) 이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여전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진정한 사과를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에 많은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유통 시장은 이런 한국인의 보편적 반일 감정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드문 영역이다.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일본계 SPA(제조·유통 일괄형)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다. 유니클로는 현재 국내 SPA 브랜드 가운데 단연 매출 1위다.

다이소도 최근 급성장

40만~70만원 책가방

란도셀 없어서 못팔아

2005년 한국에 첫 매장을 연 유니클로는 약 10년만인 2014회계연도(2014년 9월1일~2015년 8월31일)에 마침내 매출(1조1169억 원) 1조원을 넘어섰고, 2015회계연도 매출은 1조1822억 원까지 늘었다.

일본의 '100엔 숄'이 뿌리인 한국 다이소의 고속 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다이소의 매출은 지난해 1조5600억 원으로 30% 늘었고, 2013년(885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76.3%나 매출이 급증했다.

토틀과 마징가 등의 계보를 잇는 란도셀과 포켓몬도 인기다. 1970~1980년대 학생들은 '펜탈(Pental)', '지브라(Zebra)', '톰보(접지리표·Tombow)' 등 일본 브랜드 연필·샤프펜슬·지우개 등에 열광하고, 같은 시대 부모들이 큰마음 먹고 아이들에게 일제 '코끼리표(조지루시·象印)' 보온도시락 사서 돌려 보냈다.

2017년 지금도 일제 학용품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있는 집'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본 초등학생 책가방 란도셀의 경우 가격이 40만~70만 원대에 이르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다.

역시 1970년대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마징가'가 한국 어린이들의 동심을 달랠 듯, 최근 완구·캐릭터·게임 시장에서도 포켓몬·요괴워치·파워레인저 등 일본에서 건너 온 콘텐츠와 제품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포켓몬은 자체 캐릭터 상품의 '히트'뿐 아니라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형태로도 지난달 24일 상륙해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38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신드롬(증후군·특정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가요·라면 ... 한국상품 열풍

■일본에서

반일 감정 속에서도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일본 브랜드가 한국 소비 시장에서 맹위를 떨쳤지만, 2000년 이후로는 한국 상품·콘텐츠·서비스가 일본에 상륙해 인기를 끄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나타났다.

우선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로부터 시작된 일본 내 '한류 열풍'은 이후 케이팝(K-POP·한국가요) 등으로 영역을 넓혀며 저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제31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시상식에서도 빅뱅과 방탄소년단, 2PM, 아이콘 등 케이팝 그룹들이 대거 상을 받았다.

한국 식품 업체들도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 라면은 '라면 중추국' 일본 시장에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렸다. 농심에 따르면 일본 현지 법인 농심

빅뱅·방탄소년단 한류 열풍

CJ 미초·양념장 성장 속속

'설빙' 도쿄에 1호점 개장

자원의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33%나 늘었다. 농심 해외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 1981년 도쿄(東京) 사무실을 연 지 37년여 만에 일본인들로부터 '한국 라면의 맛'을 인정받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해마다 4월 10일을 신라면의 날로 정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난해 참석한 유명 개그맨 팀들이 '맛있다!'를 연발하면서 신라면을 먹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음용식초(마시는 식초)의 본고장인 일본 시장에서 '쁘띠첼 미초'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식초를 물에 타 먹는 음식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 규모는 약 900억 원으로, 한국 시장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CJ제일제당은 크게 고분된 상태다.

CJ제일제당의 '쁘띠 양념장'도 일본 시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릿 수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 프랜차이즈들도 속속 일본 공략에 나서고 있다.

빙수 브랜드 '설빙'은 지난해 6월 도쿄 하라주쿠에 1호점을 냈는데, 개장 당일 매장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100m 넘게 이어져 화제가 됐다.

설빙은 이달 초 후쿠오카(福岡) 변화가 덴진(天神)에 2호점을 열었다.

토종 차킨 브랜드 '굽네치킨'도 최근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에 첫 번째 매장을 선보이고 한국의 '치맥' 문화 전수에 나섰다. IT(정보통신) 부문에서도 일본 진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집 마련 고민 한 번에 해결해 드려요”

LH 광주전남본부 '마이홈 상담센터' 확장 이전

“내집 마련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가 운영하는 마이홈 상담센터가 확장 이전 함께 전문 상담직원을 확충해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나섰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는 지난 27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옥 내 '광주권 마이홈 상담센터'를 사옥 1층으로 확장 이전해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 상담직원 배치를 통해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원스톱 안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마이홈 상담센터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거급여, 주택자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역본부 내 마이홈센터는 2015년 12월부터 광주 1곳을 포함한 목포, 순천 등 주거복지 거점 3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상담직원 늘려

무주택자 주거지원 등

원스톱 안내 체계 강화

자금대출·정보제공도

전남지역은 목포권주거복지센터(목포시 통일대로 119번길)와 순천권주거복지센터(순천시 중앙로 260) 내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다.

상담센터에는 통상 2~4명의 상담직원들이 주거지원정책과 자금대출 등에 대해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광주권 마이홈 상담센터는 주거복지 전문 상담사 4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파견된 기금상담원 1명 등 총 5명이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방문상담 4737건, 전화상담 9320건 등 총 1만4057명의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이 안정된 주거를 찾기 위해 마이홈상담을 이용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광주전남지역본부 사옥 내 '광주권 마이홈 상담센터'가 사옥 1층으로 확장 이전해 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상담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한다”며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 원룸이나 고시촌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연령층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본부는 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 상담직원 확충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원스톱 안내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기 LH 광주전남본부장은 “본부 내 마이홈 상담센터 확장 이전을 계기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주거복지 관련 상담 이외에 토지·주택의 개발과 건설, 공급 등 종합적인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마이홈센터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온비드 공매 광주·전남 관심 물건



◆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아파트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37 우미아트빌 203동 306호
- 관리번호 : 2016-07664-001
- 면적 : 대 51.4216㎡
건물 84.6985㎡
- 감정가격 : 금 282,000,000원
- 최저입찰가격 : 금 282,000,000원
- 입찰기간 : 2017.03.06 ~ 2017.03.08.
- 내용 : 본 건물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우미아트빌' 203동 306호로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 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소재 임야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산152-40
- 면적 : 임야 1,539㎡
- 관리번호 : 2016-15497-001
- 감정가격 : 금 107,730,000원
- 최저입찰가격 : 금 107,730,000원
- 입찰기간 : 2017.03.06 ~ 2017.03.08.
- 내용 : 본 건물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소재 무안통합관광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펜션, 음식점, 숙박업소, 미개발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로를 이용함.

*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 가능 (현장 입찰은 없음)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4층	치과, 이비인후과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2층	내과, 검진센터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6층	물리치료실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

광주·전남 프리모 남가발

대산 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전) 대산프리모 1호

대산프리모 남가발